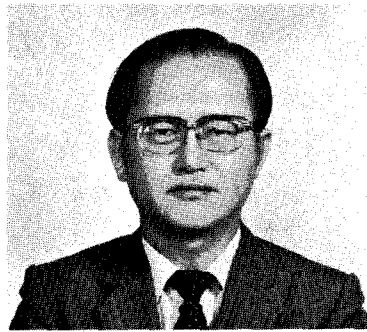


- 유통기능강화·조사료 생산에 역점 -

축산국 기구개편의 의의 및 목적

“축산업이 대형화되면서
행정당국의 시책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 추세를 감안하여
농수산부의 기구개편이
있었다.”



신 정 균

농수산부 축정과

농수산부는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어촌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등 새로이 늘어나는 농수산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86년 5월31일자로 본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직제개편은 정원이나 직급조정 없이 현재의 정원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통하여 농어촌 종합기능개발과 농수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편으로 농지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특작국이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되었고 특작국의 특작과와 축산국의 가공이용과는 폐지되고 농어촌개발국의 종합개발과와 축산국의 중 소가축과가 신설되었으며 6 개과가 개편되고 4 개과는

소속국이 변경되었다.

한편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재발령원칙 아래 자리바꿈없이 인사재발령이 이루어졌다.

축산시책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국내부존사료자원의 개발이용확대 배합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그리고 가축의 생산성 제고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양축경영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기초를 두고있다.

축산업은 그동안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증가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축산물의 국내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었고 그 산업적 비중도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축산물은 대체로 생산이 장기적이고 소비와의 시차성이 클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

큰 소비수요의 변수가 커 그동안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정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 됨으로써 축산물의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안정문제가 양축경영안정과 축산소득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당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축산시책은 특히 소값을 포함한 축산물가격안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급사료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축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축산국의 기구도 이러한 축산시책의 방향에서 가축별 생산과 수급 조절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조사료생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축산물은 절대생산부족으로 일부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증식위주의 시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축산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국내생산기반이 확보되면서 국내생산의 적정조절과 수매비축 수출입시책의 중요성이 커져 수급가격안정에 주력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현재 증식지원위주의 편제로 인하여 생산과 수급 및 가격조절기능이 과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던 것을 축종별로 생산조절 수매비축 등 가격안정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축산국에는 종전의 축산과를 축정과로 하고 낙농초지과와 가공이용과 사료과를 개편하여 대가축과 중소가축과와 초지사료과로 폐지 또는 개편하였다.

따라서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종전의 축산과는 축정과로 개편하면서 축정 기획 유통계를 두고 축산과에서 관장하던 기획업무 축산진흥기금시책 가축품평회 축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업무의 지도감독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종전 가공이용과에서 관장하던 축산물수급, 축산물수출입, 가축시장 등의 총괄 업무를 분장하고 축산물도매시장의 지도, 축산물 유통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가축과는 대가축 및 그생산물의 수급조절,

수매 방출 및 가격안정시책을 축종별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관장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가축인 한우, 육우, 젓소부문에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수급, 경영 낙농계를 두었다.

수급에 관한업무는 종전에 가공이용과에서 관장하던 축산부문 전체의 수급, 가격, 수출입 및 시장조사 업무중 대가축부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대가축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 가격동향분석, 가격제도개선, 지육 및 포장육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 경영업무로써는 대가축에 대한 증식 및 사육조절, 소득분석을 포함하고 사양 및 경영개선, 종축의 개량보급, 대가축 목장지원, 차관 및 합작투자업무 등을 담당하고 낙농계업무는 종전의 낙농초지과에서 관장했던 업무중 낙농에 관한 사항으로써 낙농진흥계획수립, 젓소 및 우유의 수급조절 가격안정대책, 수출입, 낙농기술 및 경영지도, 낙농심의회운영 및 낙농차관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가축과는 대가축의 중소가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계와 관리계를 두었다. 수급에 관한 업무로써는 종전에 가공이용과에서 관장하였던 업무중 중소가축 및 생산물의 수급, 가격동향분석에 의한 가격안정대책업무, 출하제도개선 축산관측 및 유통예고, 가축통계조사 및 사육동향분석, 수출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중소가축의 사양 및 경영개선, 개량증식 및 사육조절, 종축의 보급, 양돈업 및 종돈업의 관리지도와 계열화사업, 중소가축관련단체지도, 양계, 증금, 부화업의 관리지도와 그와 관련된 계열화사업, 양봉업의 지도육성, 가금류의 개량 및 능력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초지사료과의 업무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확대 배합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강조되고 특히 소사육에 있어 배합사료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급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위한 산지개발과 사료작물 재

배를 포함한 품사료개발의 중요시책으로 등장하고 있어 축산국의 기구도 이를 감안하여 종전의 사료과 업무와 낙농초지과에서 관장하던 초지의 조성, 관리 업무를 개편된 초지사료과에 흡수시켜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나가기로 되어 있다.

개편된 초지사료과에서는 사료수급, 관리, 초지계를 두고 사료수급에 관한 업무로써는 사료생산 및 가격동향조사, 사료수급계획 및 조절, 배합사료원료의 수입 및 해외시장동향분석, 배합사료 및 유통사료의 가격 및 수급조절, 사료가격 안정기준가격의 운영, 사료관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고, 사료관리업무로써는 사료공장의 허가등록 및 경영지도와 국내의 사료부존자원의 개발 및 보급, 사료검사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이며, 초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장단기 초지조성계획수립, 목초종자의 생산 및 수급, 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 초지관리 및 보안대책수립, 초지전용 및 사후관리, 초지의 경제성분석평가, 답리작사료작물 및 건조중산 이용, 사료작물종자 생산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위생과는 종전의 위생, 방역, 수의계외에 지도계를 신설 4 개계로 확장되었다. 지도계의 업무는 종전 가공이용과에서 추진하던 지도업무 중 부정축산을 유통지도 단속 업무가 추가되고 수의계 업무중 동물약품 품질관리, 수의약사감시 불량축산물용기 유통단속 업무를 이관받아 담

당하고 있다.

한편 축산국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은 6월 3일자로 과장급인사에 이어 6월 4일자로 사무관급 및 축산기좌(계장급)와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 축 정 과 : 과 장(서 기 관) 신 순 우
 축정계장(행정사무관) 신 정 준
 기획계장(행정사무관) 류 홍 렬
 유통계장(축 산 기 좌) 김 남 철
- 대 가 축 과 : 과 장(서 기 관) 김 동 근
 수급계장(행정사무관) 최 상 태
 경영계장(축 산 기 좌) 조 병 대
 낙농계장(축 산 기 좌) 이 창 구
- 중 소 가 축 과 : 과 장(축 산 기 정) 이 인 형
 수급계장(축 산 기 좌) 이 수 현
 관리계장(축 산 기 좌) 박 중 근
- 초 지 사 료 과 : 과 장(서 기 관) 천 중 인
 수급계장(행정사무관) 김 남 렬
 관리계장(축 산 기 좌) 주 능 완
 초지계장(축 산 기 좌) 김 현
- 가 축 위 생 과 : 과 장(수의관 4 급) 전 찬 주
 위생계장(수의관 5 급) 배 상 호
 방역계장(수의관 5 급) 김 영 무
 수의계장(수의관 5 급) 이 갑 일
 지도계장(수의관 5 급) 이 홍 길

알 림

「월간양계」에 게재될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축산업계 종사자 전원(남·녀)
 내용 : 축산업계 근무경험 중심으로
 기간 : 매월 20일까지 매수 제한없음.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계 편집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TEL. 752-3571~2